

돼지처럼 탐욕스런 미대학사회 풍자

특이한 소재에 톡톡 튀는 감각의 소설로 큰 인기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제인 스마일리의 신작 소설 《무(Moo)》(알프레드 A. 크넵)가 특이한 소재, 구성, 톡톡 튀는 풍자감각으로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즈》 북리뷰지가 '20세기말 미국 중서부의 발자크'로 극찬한 작가의 작품인데다가, 돼지를 통해 미국사회 특히 대학사회의 탐욕스런 뒷모습을 꼬집는다는 흥미로운 줄거리여서 곧 베스트셀러에 오를 것으로 출판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소설의 무대는 '무 유니버시티'란 별명으로 불리는 농업전문대학. 중서부에 자리잡은 대학답게 동물학·생물공학·농업공학 등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교수나 학생이나 닭에게 어떤 사료를 줄 것인가 등의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곤 한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7백파운드짜리 흰돼지 얼 버즈이다. "폭스바겐사의 비틀 형 자동차만큼 크지만 훨씬 더 민첩한" 버즈는 학교 캠퍼스 중앙에 있는 한 빈 건물 지하실에서 밥이란 학생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종일 먹고 자는 속편한 돼지이다. 우둔하고 탐욕스럽지만 고독도 느낄 줄 아는 밍지않은 캐릭터인 셈이다.

발자크의 소설처럼 '무'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돼지 버즈만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한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육체적인 배고픔 대신 권력, 쾌락, 명성, 성 또는 좋은 학점에 늘 굶주려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경제학 교수 라이오넬 기프트이다. 그는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은 상품"이란 명제를 진리로 신봉하는 물신주의자이다. 기프트는 금광병에 걸린 한 억만장자와 손을 잡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다. 여기에 돈많은 기업가 앞에서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 여자 부총장이 가세한다.

이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위커 부인.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레즈비언으로 성해방주의자이다. 체어맨 X란 기묘한 이름을 지닌 중년의 남성 진보주의자는 버즈가 살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당국과 충돌을 일으킨다.

소설은 우둔하고 반지성적인 주지사 오빌 T. 얼리가 무 대학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학생·교수진이 학교내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가 폭동으로 비화하면서 흥미를 더하게 된다. 결국 무 대학은 한 늙고 순박한 농부의 노력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선악정원의 심야》는 곧 영화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으로 폐교위기에 처해 버어나게 된다. 저자는 고집세면서도 독립적이고 건전한 이성을 갖춘 이런 농부들이 많다면 미국이 겪고 있는 도덕적 혼란과 정치·경제적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무 대학은 오늘날 미국사회의 축소판인 셈이다. 《타임》지는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바보스런 해프닝들과 동물, 농작물 등에 대한 저자의 탁월한 지식이 어우러진 재미있는 작품"으로 소개했다.

폭발적 인기 모은 실화소설

80년대초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善惡)선악정원의 심야》(랜덤하우스)가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타임》지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 3월말까지 《뉴욕타임즈 북리뷰》지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년 연속으로 오른 이 작품이 서점가의 인기를 업고 일종의 사회적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46판을 찍었으며 노르웨이를 포함해 6개 국어로 출간됐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조지아주 사바나 시에서는 책을 손에 들고 현장답사하는 관광객들

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에스콰이어》지 기자인 존 베렌트가 쓴 《선악정원의 심야》는 1981년 사바나에서 발생했던 사기꾼 대니 헨스포트 살해사건을 파헤친 작품. 살해 혐의자로 몰린 골동품 거래상, 탐욕스런 변호사, 수완좋은 하녀 등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실존인물들이 총출동하고 있다. 남부 특유의 끈끈한 분위기도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사건 자체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바나 주민들이 타지인들의 느닷없는 관심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술집, 저택은 물론 공동묘지까지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에 익숙해진지 오래다. 오히려 지도와 T셔츠, 관광가이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놓고 손길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내 한 식당에는 최근 '선악 정원에서 맛만 싱싱한 야채 샐러드'란 메뉴까지 등장했다.

저자 베렌트는 남부와는 거리가 먼 뉴욕 시라큐즈 태생으로 《에스콰이어》지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뉴욕》지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는 82년 사바나 여행 경험을 되살려 3년전 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탈고 후 몇차례 출판사와 에이전시의 문을 두드렸으나 "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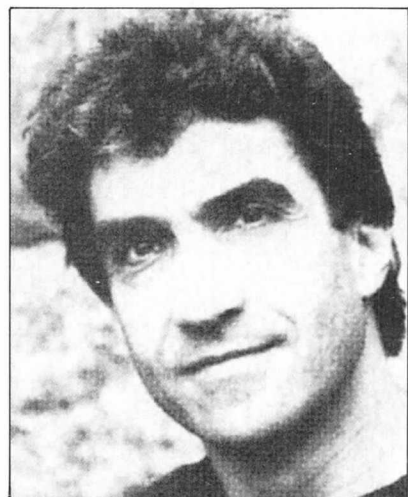
지엽적이고 비상업적인 내용"이란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베렌트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컬트 팬이나 비평가의 호평은 기대했어도 대중적인 인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출판계에서는 이 책의 성공요인으로 탄탄한 구성 및 문장력과 함께 랜덤 하우스의 짜임새 있는 홍보전략을 지적하고 있다. 랜덤 하우스는 38개 주요도시에서 대대적인 광고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바나 공짜여행 티켓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독자들의 관심을 일으키는데 한몫했다. 《선악 정원의 심야》는 워너 브러더스사를 통해 영화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곡》 영역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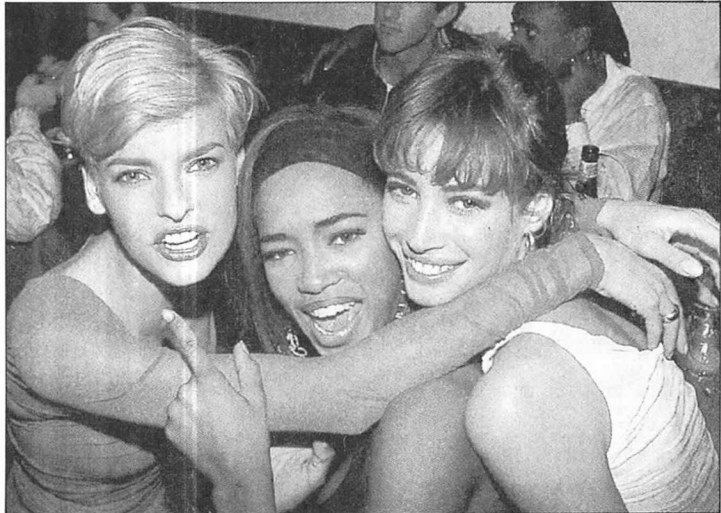
유럽문학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 최신 영역판이 전문가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파라 스트라우스&지루 출판사가 최근 펴낸 《신곡》 중 1권 《연옥》편이 원작의 운율과 의미를 압축적으로 잘 살려내, 지금까지 출간된 영역판 중 최고의 번역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번역자는 미국의 중견 시인 로버트 핀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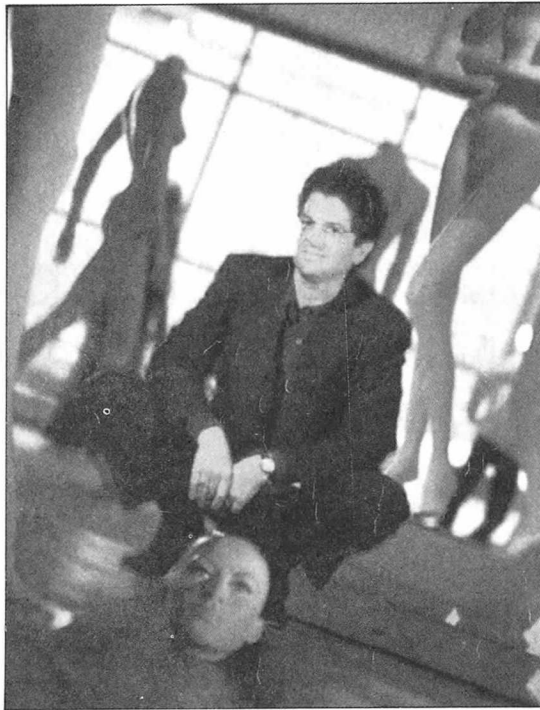


《신곡》을 번역한 로버트 핀스키.

90년 시집 《더 윈트 본 The Want Bone》으로 섬세한 문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는 가장 대중적인 현대영어만을 사용해 《신곡》의 참맛을 살려냄으로써 미국 최고의 이탈리아어 번역가란 명성까지 얻게 됐다.



슈퍼모델들의 어두운 이면을 다룬 책이 모델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모델》을 쓴 마이클 그로스.

톱모델의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뛰어난 미모와 멋진 포즈로 전세계 남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슈퍼모델들의 어두운 이면을 다룬 《모델: 미인들의 추악한 사업》이 패션, 모델계 및 서점가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에스콰이어》지 기자 마이클 그로스가 쓴 이 책이 크리스티 터링턴, 린다 에반젤리스타, 신디 크로퍼드 등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톱모델의 아름답지 못한 구석들을 파헤쳐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모델들이 웬만한 가수, 배우, 사업가들보다 더 높은 인기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TV 드라마, 전문잡지까지 나올 정도로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추세여서 팬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광고사진과 패션쇼 무대에서 순진함과 섹시함을 갖춘 외모로 눈길을 끌었던 에반젤리스타가 공짜로 는 집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수전노란 사실. 70년대말 싱싱한 건강미로 톱모델 자리를 굳혔던 셰릴 티그스가 마약중독자였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저자는 실제로 대다수 모델들이 극심한 경쟁과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몇 해전 디자이너 켈빈 클라인의 동경 패션쇼에 참여했던 모델들은 비행기가 뉴욕공항을 이륙하기 무섭게 마리화나, 코카인 등을 꺼내기 바빴다는 것이다.

새로운 얼굴과 톱클라스 모델들을 붙잡기

위한 에이전시들의 경쟁도 추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 최고의 모델 에이전시로 꼽히는 엘리트사의 사장 존 카사블랑카는 모델 지방생인 미성년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고도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저자는 폭로하고 있다. 그로스는 모델업계를 끝없이 환상과 욕망을 쏟아내는 '소시지 기계'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슈퍼모델을 꿈꾸는 십대 소녀들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오애리>

독일 여성문학의 새로운 시작

프라우엔오펜지베 출판사는 1975년 베레나 슈테판의 자전적 소설 《껍질벗기》의 출간과 함께 지난 20년간 독일의 여성문학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출판사로 입지를 굳혀왔다. 출판사측은 당시 독일여성문학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던 슈테판의 소설을 일종의 '돌발'이었다고 회고한다.

1974년 열여덟명의 여성이 모여, 좌익사상을 지향하는 트리콘트 출판사에서 프라우엔오펜지베의 터를 잡았다가 독립해 나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한결같다. 즉 프라우엔오펜지베는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출판사 설립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과 편집은 물론 경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여성이며 모두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 구성원 모두가 출판사의 주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합의 성격을 띠면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영방식도 독특하다.

70년대초 시몬느 드 보봐르를 제외하곤 여성문학이 크게 자리잡지 못했을 때, 여성운동의 기운은 이론적인 양식의 산출로 이어졌다.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성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번역서 출간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줄 만한 출판사의 설립은 당연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과 기존 출판사들과의 경쟁은 프라우엔오펜지베의 모습을 변모시켰다. 로블트 출판사의 문고판서적 시리즈인 '새로운 여성(Neue Frau)'과 피셔 출판사의 '사회학의 여성(Frauen in der Gesellschaft)' 시리즈는 여성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장정 형태, 광고 문안, 서점업계와의 협력관계 등도 책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프라우엔오펜지베 출판사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저자 및 번역가와 함께 일년에 적어도 대여섯 차례의 기획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너무나도 다양한 요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몇몇의 책이 몇명의 독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대히트작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특별한 행동, 특별한 시각으로 여성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여성 탐정소설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한해에 약 20종 정도 출간하는 '여행과 문화(Reise & Kultur)' 시리즈도 프라우엔오펜지베가 주력하고 있는 기획물이다. 주로 여성작가들이 안내자가 되어 그 지방의 문화와 풍물을 여성의 시각을 통해 전달한다. 특히 《여성들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영어판은 멜버른에서 열렸던 여성문학 도서전에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밖에 여성신학, 심리학, 성의 사회화, 모권제도의 연구, 여성미학, 여성건강서 등도 기획분야이다. 물론 여러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토론, 독자들에게서 들어온 의견들이 기획해낸 결과이다. 그중에서도 독자들의 의견은 책표지와 판본의 형태 및 가격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런 까닭으로 프라우엔오펜지베 출판사는 '기획안은 바로 오늘부터'라는 구호와 함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문성원>

